

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간서(甘誓)>에 대하여 “집전”은 “사기”의 ‘우 임금의 아들 계(啓)가 천자의 지위에 오르자 유호씨(有扈氏)가 불복하여 드디어 멸망시켰다’고 하였고, 당의 공영달(孔穎達)도 “사기”의 글을 따라 ‘오·순은 선양하고 계만 홀로 아버지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불복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또한 역측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옛부터 반역을 하는 신하들은 장차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핑계를 댈 구실을 가졌으니 비록 하·은·주 시대에 도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성왕이 어리자 삼촌인 주공이 섭정(攝政)하니 삼감(三監)이 “주공이 장차 어린 조카에게 이롭지 못한 일을 꾸민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그것이다. 계가 천자의 지위에 오르자 유호씨가 불복하지 않았는데 당 공영달의 설도 아마 혹은 이와 같은 것이라.

22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대하여 “집전”에서 “기일(其一), 기이(其二)는혹 장유(長幼)의 순서인지 혹 노래를 지은 순서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기일(其一)은 처음에 “황조(皇祖)의 가르침”을 기술하고 끝에 가서는 “어찌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하였으니 경계한 것뿐이다. 기이(其二)는 “교훈에 있으니 앞의 말을 이은 글이고, 끝에 가서는 “혹 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또한 두루 말하여 경계한 것이다. 기삼(其三)은 “이제 그 도를 잃어 끝내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처음에 배척하는 말을 하여 깊이 경계하였다. 기사(其四)는 “전통을 폐기하고 실추시켰고, 종족을 전복시켜 후손의 제사를 끊는구나”라고 말하였으니 말이 더욱 통통스럽고 두려움이 더욱 깊다. 기오(其五)는 “오호, 어디로 돌아갈까? 내 장차 누구를 의지 하리오?”라 하고, 끝에 가서는 “후회한들 좇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즉 근심과 걱정과 비분강개한 마음이 지극하여 급히 돌아갈 곳도 없고 외로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비록 지혜를 가진 어느 누구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어찌 할 수 없는 때이다. 이것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점차 삼하여 말뜻이 서로 이어지고 저절로 끝과 시작이 있으니 노래를 지은 순서임에 의심할 것이 없다.

23

<윤정(胤征)> 첫 부분에 “중강(仲康)이 사해(四海)에 처음 즉위하시어 유후(胤侯)에게 명하여 육사(六師)를 맡게 하였다”고 하였다. “집전”에는 “중강이 비로소 천자의 지위에 올라 곧 유후에게 명하여 육사를 맡게 하였고, 이듬해 바야흐로 회화(羲和)를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다. 또 “당지(唐志)”를 인용하여 “중강이 천자의 지위에 오른 지 5년을 전후해서일식이 있었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에

경서의 글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 결정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잘못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집전”에서 “중강이 천자의 지위에 오른 처음에 이미 나라의 병권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회화를 정벌하는 것도 오히려 천자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은 매우 옳다.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들이 ‘처음 즉위하다’라는 말을 먼저 기록하고 ‘명령하여 맡게 하다’는 뜻의 말을 뒤에 이어서 기록한 것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멋대로 날뛰는 신하에 대해서는 그들이 업적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수고로 여기고서는 상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고조의 지혜와 숙손작(叔孫婁)의 식견과 같이 할 수 없다면, 줄같이 유후에게 명령한 것과 한 문제가 송창(宋昌)을 임명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또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북주(北周)의 고조인 우문태(宇文泰)가 남모르게 참고 허물을 덮어쓰고 차츰차츰 도모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도 또한 좋다. 예컨대 노소(魯昭)와 조모(曹髦) 같이 피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가버이 행동하여 화를 재촉하는 것은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하다. 만약에 의지도 없으며 통제를 받고 위엄을 떨치지 못하다가 끝내 왕조를 넘긴 한·위 말기의 임금들 역시 슬피할 만하다. “계추(季秋) 월삭(月朔)에 별이 방(房)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에 대하여, “집전”에서는 “옛날에 일식이 있으면 북을 치고 폐백을 올려 구제하였으니, “춘추전”이

르기를 ‘오직 정양(正陽:4월)의 달이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였으니, 지금은 계추인데 이러한 예를 행한 것은 하나라 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계추월삭(季秋月朔)”이란 말은 “서경”에 보이고, <시월지교(十月之交)>는 “시경”의 ‘소야’에 편찬되었는데 주자는 “시경집전”에서 소씨(蘇氏)의 말을 인용하여 “순양(紂陽:4월)에 일식이 생기는 것은 양이 매우 약한 것이오, 순음(紂陰:10월)에 월식이 생기는 것은 음이 매우 강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전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늦가을 달은 오음(五陰)이 이미 자라고 제양(濟陽)이 이미 다 소멸되어 오직 상구(上九)에 일양(一陽)만 남아 있다. 석과(碩果)는 먹지 않으므로 마땅히 부양을 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때이다. 이에 일식이 생기니 양이 미약하고 음이 강성하여 석과(碩果)가 장차 먹히게 되었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일식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상(象)이다. 이때를 당하여 후에 (후)에 가 정권을 흔자 독차지하니 사자의 안전과 위험이 그의 손아귀 안에 들어 있다. 중강이 다 된 뒤에서 천자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은 상구(上九)의 일양(一陽)이 있는 것과 같다. 일식의 변화가 이와 같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여 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회화가 후예의 편을 들어 변고의 징조를 천자에게 고하지 않으니, 이는 신풍(申豐)이 계씨(季氏)의 아들을 위하여 우박이 떨어진 재난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신풍은 장빙(藏冰)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직책에 충실하였지만, 회화는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으니 그 죄가 또한 더욱 심하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42회>



이제 안집사 김복이 성야에 있던 충의공 한테로 전령을 보내자, 공이 정병 2백 명을 인솔하고 배도겸행(倍道兼行); 이틀에 갈 길을 하루 만에 달려 나감)으로 달려가 앞서 말한 왜적 1백여 급을 베어 승첩을 올렸던 것이다. 이달에 충의공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중2품)로 특별되었다. 공은 취임하자 경주부윤과 울산군수를 불러,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왜적을 쳐서 싸우지 않고 반대로 제 목만을 살 계책을 도모하리라 하다가, 곧 석방하고 장차 공을 세워 이를 스스로 속죄토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 승첩을 행해 공생 이호(李湖)의 공을 초계(抄啓)하여 특별히 포진(褒典)을 일게 하였다. 이해 봄에 크나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죽을 쏘고 약을 달여 병사와 백성을 구제하였다. 다음 달인 선조 26년 4월에는 안동의 모은루(慕恩樓) 아래에서 왜적과 싸워 크게 파하였다. 왜적 1천여 명이 서로(西路)로부터 숨어들어오면서 약탈을 행하다가 안동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군좌(軍佐) 권경성(權景星) 및 셋째 아우 응생(應生, 1560-1615)과 더불어 정병 3백을 거느리고 질치(疾馳); 빨리 말을 달려)하여 하루 2백여 리를 가서는 왜적을 안동성 서쪽 모은루 아래에서 만나 본적대와 하였다. 백안 김늑이 마침 군사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8)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일로 안동부에 이르렀다가 공의 노고를 치하하여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즉, “질풍(疾風; 몹시 빠른 게 부는 바람)이 불어오면 군선 풀을 안다(질풍경초疾風勁草; 어떠한 어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고 하였는데 오늘에 이를 보도다.”라고 하였다. 충의공은 다시 왜적을 추격하여 구담(九潭)에서 적 1백여 급을 목베거나 또한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왔다.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이를 듣고 충의공이 능히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깨뜨린 것을 기이하게 여겨 글과 채단을 보내어 포가(褒嘉; 뛰어난 공을 칭찬함 기립)하였다. 학봉 김성일(1538-1593)을 곡(哭)하였다.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사로 되었다. 전일의 일본 통신사로서의 복명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 소환 중 유성룡의 변호로 충청도 직산에서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되어 의병 창(創)하여 특별히 포진(褒典)을 일게 하였다. 이해 봄에 크나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죽을 쏘고 약을 달여 병사와 백성을 구제하였다. 다음 달인 선조 26년 4월에는 안동의 모은루(慕恩樓) 아래에서 왜적과 싸워 크게 파하였다. 왜적 1천여 명이 서로(西路)로부터 숨어들어오면서 약탈을 행하다가 안동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군좌(軍佐) 권경성(權景星) 및 셋째 아우 응생(應生, 1560-1615)과 더불어 정병 3백을 거느리고 질치(疾馳); 빨리 말을 달려)하여 하루 2백여 리를 가서는 왜적을 안동성 서쪽 모은루 아래에서 만나 본적대와 하였다. 백안 김늑이 마침 군사

공이 권사악(權士謫) 등과 더불어 결사대 4백 명을 선발해 가지고 밤을 틈타 밀양성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현종의 임시 장수인 전 군수 엄홍(嚴弘)이 무리를 거느리고 또한 내회(來會)하였다. 왜적의 무리는 5-6천이나 되는데 총을 쏘고 아군에게 고향을 질러댔다(虛囑). 충의공은 십자 햇불(十字炬)을 만들어 영남루 아래에 쭉 세워놓고 일시에 호각(角)을 불게 하니 적이 놀라면서 또한 화력을 퍼부었다. 이에 충의공이 손수 활을 쏘아 왜적의 선봉장을 죽이고 인하여 기를 휘둘러 독전하니, 단환과 화살이 비오듯하는 가운데 적진에서 쓰러지는 시체가 산더미 베어 놓은 것과 같았다. 남은 왜적 수백 명은 밤을 틈나 도망가기에 바빴다. 9월에는 총좌위 부호군(忠佐尉副護軍) 겸 경상좌도 방어사(防禦使; 중2품 무관직으로 통제 강화와 국방력의 제고와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관)로 체(遞拜)되고, 10월에는 서울로 올라가 예결(詣闕)하여 선조임금께 사언하였다. 이해 5월에 삼경(三京:서경[평양]·개경[개성]·한성[서울])을 수복되었다. 선조 27년(1594년) 갑오에 공은 49세로서 정월에 중2품 가신대부(嘉善大夫)로 특승하여 용안위 대호군(龍驤尉大護軍) 겸 경상도 병마좌별장(兵馬左別將)에 임명되었다. 4월에는 경주 황룡사(黃龍寺) 아래에서 적을 격파하고, 충의공의 재종 동생인 군좌(軍佐) 권응심(權應心, 1554-1597)을 보내 왕제사(왕해군)의 행궁(行宮)에 왜적을 목을 풀여 약탈을 자행케 했다. 충의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5)

논어 해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는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9장 공자가 말했다. “내가 회와 더불어 하루 종일 말을 해봐도 어리석은 듯이 내 뜻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라 그가 물러간 뒤에 그의 사적인 행실을 살펴보면 또한 내말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충분하니 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원문]子曰 吾與回로 言宗日하나 不與與回로니 退而省其私하되 亦足以發하나니 回也不愚로다. [자왈 오여회로 언종일하나 불위우리니 퇴이성기사하되 역족 이발하나니 회아불우로다.] [이해] 회[回]는 안회를 가리키는데 공자의 예제자로 노나라 태생이며 자[字]는 자연이고 젊어서 요절 하였는데 공자보다 서른 살이 연소하였다. 다른 제자들은 자주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치를 깨닫는데 비해 안 회만이 유독 아무 말이 없어서 우매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이미 모든 진리를 터득해 말없는 가운데 그 배운 바의 실지를 공자가 가르친 것과 어긋남이 없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제10장 공자가 말했다. “그 지향하는 바를 보고 그 행위 하는 까닭을 살펴서 그가 만족해하는 바를 관찰하면 어찌 그 사람됨이 감춰져 있는가. 어찌 그 사람됨이 감추어 지겠는가.” [원문]子曰 親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던 人焉廋哉리오 人焉廋哉리오. [자왈 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안이던 인언수재리오 인언수재리오.] [이해] 맹자는 사람의 행실이란 본디 언고행(言顧行)하고 행고언(行顧言)한다. 알렸는데 사람의 처세란 아무리 가식이나 위선으로 덧칠을 가한다 하더라도 결코 진실의 벽을 어슬피 타고 넘을 수 없는 법이며 인간 자체가 항상 여러 대중의 이목 속에 살아가게 마련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치를 깨닫는데 비해 안 회만이 유독 아무 말이 없어서 우매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혁채



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이를 정답게 하고 또 따라 서 기뻐할 것 아니라.” 시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착한말 듣기를 즐겨하며 착한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라. 남의 약한 것을 듣거든 가시를 몸에 지고 있는 것 같이 하고 남의 용맹을 믿고 서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해설: 태공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 서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馬援 이대(마원 이월) 聞人之過失(문인지과실)이어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기득문)이언정口不可言也(구불가언어)이니라. 해설: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景行錄에云(경행록에 운) 大丈夫(대장부)는 當容人(당용인)이언정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太公 이대(태공 이월) 勿以貴己而賤人(몰이귀이치언이)하고

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이를 정답게 하고 또 따라 서 기뻐할 것 아니라.” 시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착한말 듣기를 즐겨하며 착한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라. 남의 약한 것을 듣거든 가시를 몸에 지고 있는 것 같이 하고 남의 용맹을 믿고 서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해설: 태공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 서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馬援 이대(마원 이월) 聞人之過失(문인지과실)이어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기득문)이언정 口不可言也(구불가언어)이니라. 해설: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景行錄에云(경행록에 운) 大丈夫(대장부)는 當容人(당용인)이언정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太公 이대(태공 이월) 勿以貴己而賤人(몰이귀이치언이)하고

(다음호에 계속)

세무법인 이선

-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능주신동로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곡마을3길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대표 / 세무사 권혁창

Mobile:010-3680-5057
E-mail:fax21@yahoo.co.kr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희소수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공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30만원을 할인(반값에)해드립니다.

- 평생 사주 재물은 고행·백일 건강은 미련은 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노인치매예방정병자격증 소지

서울 도봉구 상문3동 88-21 편의점(2층) (심리상담실 운영 자격)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전철 4호선 상문역 4번출구 100m(편의점2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 잘먹고 산다
◆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

일도 철학원 권영섭